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KBS 「관악산송신소」 풍수해 대비현장 방문

- 여름철 집중호우·태풍 등 대비 방송시설 안전 및 비상대응체계 점검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김홍일 위원장은 5월 17일(금) 한국방송공사(사장 박민, 이하 ‘KBS’)의 관악산송신소를 방문하여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등에 대비한 방송시설의 안전상태 및 비상대응체계를 점검했다.

특히, 송신소 내 비상발전기, 외부안테나 등 방송시설과 낙뢰 대비 보호설비 등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한 방송망의 조기 안정화 및 민원 대응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지를 살폈다.

김홍일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방송망의 안정화를 통해 365일 중단 없는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방송사의 기본 책무”임을 강조하고, “매년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방송시설 보호를 위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을 당부했다.

관악산송신소에서는 서울, 과천, 안양, 고양, 평택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의 시청자들에게 TV, 지상파DMB, 라디오 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담당 부서	지상파방송정책과 재난방송관리팀	책임자	팀 장	이훈식 (02-2110-1442)
		담당자	사무관	류진원 (02-2110-1448)